

# “내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이번 주 역시 취재 도중 기가 막힌 환자를 만났다. 얼굴이 새까맣고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라 있는 이 환자는 유독 배만 터지기 일보직전인 풍선처럼 뽕뽕하게 복수가 가득 차 있었다.

언뜻 이런 외모로 보아서 60대 중반처럼 보이는 그였지만 그의 환자카드에는 48세라고 쓰여 있어 깜짝 놀랐다.

“어떻게 병원에 오시게 되셨어요?”라고 물으니,

얼마 전 갑자기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구급차에 실려 왔다고 한다.

또한 병원에 와서 피가 멈춘 후부터는 복수가 차올라 지금은 심각하게 찬 복수 때문에 폐까지 압박을 받아 숨조차 쉬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환자의 병명은 간암 말기이다. 그는 말기가 되어서야 뒤늦게 병원을 찾은 것을 한탄하며 자신의 얘기를 털어 놓았다.

그는 지난 25년간 소주를 2병씩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마셨다. 그 결과 그의 간은 지방간에서 지방 간염으로 그리고 간경화, 끝내는 간암 말기에 이르렀고 피를 토하고 실려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은 암 덩어리가 문맥(간의 피가 심장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 그 피가 식도의 작은 핏줄을 통해 심장으로 가려다가 터진 것(식도 정맥류)이었다. 이제는 간이 대사를 하지 못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물이 배에 산더미처럼 차 나이 50도 채 못 되어 어린 자식들을 남기고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최근 조사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찾은 사람들 가운데 30% 가량이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지방간 환자들은 대부분 별다른 걱정이나 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매일 소주 한 병을 10년 동안 먹게 되면 1/3의 사람이 간 경변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지방간환자가 치료를 하지 않은 채 10년 동안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절반 가량의 사람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간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주된 원인인 B형간염 다음으로 알코올성 간질환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유독 술과 관련된 간질환이 많은 것

은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와 관련돼 대체적으로 술에 대한 인심이 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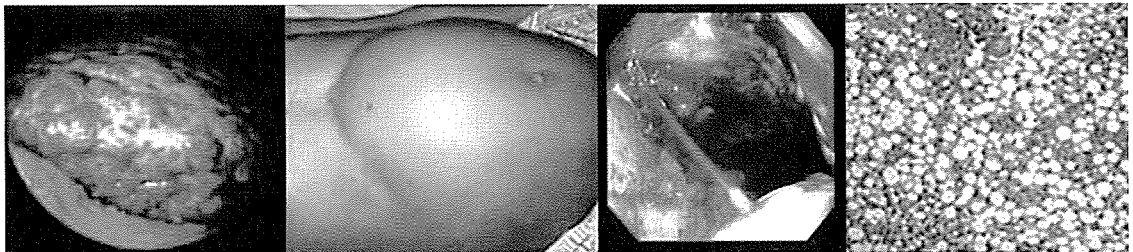
연말 회식이 준비한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이 마시게 되는 술의 양은 1년 동안 마시는 술의 양의 절반이나 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의 평균 간 용량은 소주 1병 정도에 대한 해독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술을 마셨을 경우, 이 술이 완벽히 체내에서 해독되는 데는 3일이 걸린다. 하지만 흔히 우리나라 술 문화는 한 번 마시면 끝도 없이 마시고, 다음날 또 마시는 연말회식 풍경을 떠올리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몸집이 남성에 비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의 크기 또한 비례적으로 작아서 남자가 마시는 술의 1/2만으로 간에는 같은 부담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자와 같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간질환에 걸리게 될 확률이 남성에 비해 2배가 높다. 최근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지난 15년간 여성 간호원 20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전보다 술이 지방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올 연말연시에는 건강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술을 덜 먹고, 먹더라도 3~4일 간격으로 하고 자주 먹지 않도록 주의해 간의 건강을 잃지 마시기 바란다. ☺



▲간경변

▲복수

▲식도정맥류

▲지방간